전북 특성화고 발전 방안 모색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특성화고 교장들과 간담회… "맞춤형 교육 최선"

"특성화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4일 본청 회의실에서 도내 특성화고 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현안 공유와 협의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특성화고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교육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등 전북교육 10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학과 운영 승인 △비선호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인식 제고 정책 추진 △특성화고 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설립·증축 등 특성화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용성고 송한득 교장은 "디지털 수업 역량강화 연수 등에 대한 교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읍제일고 김용걸 교장은 "27년 개교예정인 (가칭)전북반도체고등학교의 실습실 확충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반도체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화고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회의실에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도내 특성화고 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현안 공유와 협의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한국아름다운공동체가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공동체 의식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한국아름다운공동체' 출범

(사)한국아름다운공동체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북 교육계 주요 인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다.

두재균 전 전북대 14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고문으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운천 전 국회의원, 시태봉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3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또 자문위원장에는 나춘균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교직원힐링치유센터(센터장 이기종) 운영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사 사기진작에 힘쓰며, 청소년 사랑의 밥차(위원장 ㈜다하실 대표) 운영을 통해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에게 식사와 간식을 지원한다.

두재균 이사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교육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AI 분야 기술력 세계가 인정

조형기 교수 연구팀, '2026 CES' 혁신상 수상

공간 매핑 휴대형 플랫폼 전환 스냅스페이스 개발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조형기 교수(사진) 연구팀이 개발한 휴대형 공간정보 취득 디바이스 '스냅스페이스(Snap Space)'가 'CES 2026' Construction & Industrial Tech 부문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가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글로벌 전시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다.

특히 전북대의 AI·로보틱스 분야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스냅스페이스는 멀티센서 융합 기반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적용한 초경량 휴대형 공간정보 취득 장치다. 실내외 환경의 3차원 구조를 실시간으로 인식·지도화할 수 있으며, 고가의 라이다 장비 없이도 정밀한 공간 매핑이 가능하도록 SLAM 알고리즘을 경량화·저전력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IITP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NIPA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PoC 등 다수의 국가 R&D 지원을 통해 개발됐고, 전북대 RISE사업단의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개선,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스냅스페이스는 현재 헬멧형·핸디형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돼 건설·안전·물류·실내 내비게이션·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다.

조형기 교수는 "스냅스페이스는 기존 대형 장비 중심의 공간 매핑 기술을 초경량·휴대형 플랫폼으로 전환한 혁신 기술"이라며 "RISE사업단의 체계적 지원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함께 연구해 준 팀원들과 전자공학부 구성원, RISE 사업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AI·공간AI 융합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전북대형 로보틱스 플랫폼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대는 CES 2026에서 유레카파크(Eureka Park) 내 전북대 전시관을 운영하며 스냅스페이스를 비롯한 주요 산학연협력 성과와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외국인 노동자 화학안전 다국어 안내서 제작

전북대학교 RISE-Ⅱ3 사업단(책임자 박천웅)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국어 화학안전 안내서 '화학안전 A to Z'를 제작했다.

전북대는 한국환경공단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근 한국어와 미얀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는 전북 산단과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지침을 언어 장벽 없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겼다.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인지 △화재·누출 등 상황별 대응 요령 △비상문구 및 기초 한국어 표현 안내 등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신고→초동조치→대피), 화학물질별 위험성, GHS 그림문자,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등은 시각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RISE사업단, 부안군과 농생명식품 교육센터 개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과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4일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부안군 농생명식품 S.M.A.R.T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군수,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두산로보틱스 관계자, 지역 농식품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부안군 농생명식품 S.M.A.R.T 교육센터'는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협동로봇 등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운영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스마트 교육센터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로코노미(Loconomy) 형성을 위한 지역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교육센터는 부안군 청년 농식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자동화 장비 실습, 상품 개발 등 맞춤형 실습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농생명식품 분야의 스마트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효진 교수(푸드테크학과)는 "전주대는 부안군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농식품 개발의 스마트화 인프라를 갖춰 새만금지역과 연계를 확대해 로코노미 거점조성 및 농식품생명 분야의 교육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AI 기반 미래형 학교 배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AI·GIS 기반 미래형 학교 배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2024년 3월 정부가 전북의 주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지정하며 위기 신호를 보냈음에도, 현재의 대응 방식은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하길 기다리는 듯한 현행 방식보다는 농촌 교육을 살리고 학교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적극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험에 의존하던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통학 구역의 광역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보다 정교한 잣대로 학교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행정망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동 △지역별 인구·건축 정보 △지리적 특성 및 실질 통학 거리 △소멸지수 및 학생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I 기반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전북교육청은 과거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제 전산 시스템이나 통학버스 안전관리 시스템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온 저력이 있다"며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학교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행정전산망 구축에는 설계부터 실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2026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북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용역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천호성 교수는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자라는 토양"이라며 "전북교육청이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유능한 행정'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설(건축) 직렬 1명… 내년 1월 기본교육 이수 뒤 임용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일 누리집을 통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시설·공업 직렬의 경우 채용 규모의 30% 이내의 인원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는 5명이 응시해 최종 1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시설(건축)직렬로, 오는 8일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1월 중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임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보육업무 해설서로 유보통합 준비

전북교육청·도청 협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육업무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본청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6명,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시·군·구청 보육업무담당자 4명 등 총 10명으로 보육업무 자료개발지원단을 구성,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해설서 제작을 완료했다.

이는 보육업무 이관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설서는 보육업무 일반, 관리업무, 지원업무, 부록으로 구성됐다.

보육업무 일반에는 △전북 유보통합 추진 현황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전북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관리업무에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집 수급관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를 포함시켰다.

또, 지원업무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이용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부록은 △지자체 보육사업 현황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시설 회계 예산과목 구분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제도 실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민원·공익·부패신고 업무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권미라 청렴정책담당 사무관이 부패·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적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공동관리위 정책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5일지 이틀간 전주 왕의지밀에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공동관리위원회 제7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 협의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소통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계자, 시도교육청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등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전국 단위의 협력 방안과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유아교육과 개벽장학회 장학생 등 선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하반기 외부 장학금 수혜를 통해 역량을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과는 지난 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2025년 전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개벽장학회 성적우수 장학생 1명, 도지사 및 도교육감 장학금 6명을 포함해 장학금 8명 등 총 15명의 학생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경로 학생은 성실한 학업 태도와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개벽장학회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김유경 학생 등 13명이 도지사 장학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번 장학생을 선발한 개벽장학회는 개벽종합건설 이영섭 대표가 2020년 설립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다.

/장은성 기자